

“부산시-알마티시, 상호협력... 영상·관광 등 교류 기대”

(카자흐스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인적교류·경제 등 협력확대 합의
“2030부산엑스포 유치홍보 도움”
수출상담회사 385만 달러 계약



부산시가 지난 1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1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중앙아시아 등 부산의 북방지역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며, 대학생 엑스포홍보단, 기업인 등 55명의 민간외교사절단으로 지난 13일 출정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첫 성과이기도 하다.

같은 날 알마티시청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여한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기업인 등 알마티시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두 도시는 우호협력도시로서 상호번영과 발전

을 도모하고 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경제, 문화, 관광, 영화, 디지털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우호도시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

다”며, “특히 이번 우호도시협력 협약 체결로 영화영상의 도시인 알마티와 국제관광도시인 부산시가 영상, 관광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마티시는 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첫 중앙아시아 도시다. 시는 이번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로 카자흐스탄 최대도시인 알마티시에 부산 지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 더욱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이로써 시는 28개국 38개 도시와 자매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활발한 도시외교 기반을 가지게 됐다.

또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과 함께 출정한 무역사절단은 알마티시 기업투자국과 상업협동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현지 바이어 65개사와 385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추진했다.

한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이번 성과에 이어, 비슈케크, 타슈켄트를 거쳐 브뤼셀, 파리 일정을 소화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중앙아시아 도시와 실질적 교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대학생 전입신고 현장접수

목포시가 한 명의 인구가 더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목포(애) 주소갯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9~20일 관내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대학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현장 접수 서비스를 운영했다. 시는 재학생이 목포시에 전입할 경우 1인당 최대 6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3회 분할해 지원하는 혜택을 안내하면서 전입신고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거주지로 전입을 독려했다.

또한, 청년지원 정책 등 다양한 인구시책을 알리고 복포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도 노력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구인·구직 매칭 장 열린다 경남도, 오늘 채용박람회

26개 기업 참여 190여명 채용키로
증명사진 무료촬영 등 이벤트 마련

경남 고용위기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희망잡고 일잡고 채용박람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 일자리 지원기관이 협업하는 행사로, 경남도와 김해시,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해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인력난 업체에는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만남의 장으로 마련했다.

자동차, 기계, 항공등 고용위기산업 관련 기업인 흥일기업(주) 등 26개 기업이 참여해 생산기술직, 생산품질관리직, 금속공학기술자, 연구직, 해외영업직 등 19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자 지원 이벤트로는 ▲증명사진 무료 촬영 ▲스트레스 검사 ▲직업 타로로 알아보는 적성검사 ▲취업서류, 이미지, 면접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채용박람회 관련 문외는 김해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고용위기 퇴직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구인난 해소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5일 김해시 가락로 58에 개소한 김해고용안정선제대응 지원센터는 지역 위기산업 퇴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특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심리상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실직자의 구직스트레스 해소와 구직 활동 참여를 도와주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신안군 ‘2023년 문화의 달’ 개최지 선정

문화체육부서 국비 2.7억 지원

전라남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신안군을 선정했다.

2023년 문화의 달 개최지 공모에는 총 13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문체부는 행사추진 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능력,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신안군을 선정, 국비 2억7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안군은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를 주제로 독특한 섬 문화와 생태를 그대로 담아낼 계획이다. 섬의 축제 문화인 ‘산다이’를 포크 음악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공연 및 행사 등 다채로운 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21년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퍼플섬’ 일원에서 슬로우 아일랜드 축제를 개최해 예술 동아리의 공연과 느리게 걷기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물한다.

또 ‘테마가 있는 일곱빛깔 섬여행’ 팸투어를 통해 오감만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주민과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관광자원의 보고 신안의 특색있는 섬 문화를 널리 전파하게 됐다”며 “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함께 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해 소통과 교류의 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의 달’ 사업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내일부터 ‘부산 수제맥주 마스터챌린지’

자갈치시장 물양장서 3일간 개최

부산시는 23~25일 3일간 자갈치시장 물양장에서 ‘2022 부산수제맥주 마스터챌린지’를 개최한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제맥주 시음 평가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행사는 자갈치 밤바다를 배경으로 자갈치시장 물양장에서 시민참여형 축제 행사로 열린다.

소상공인 유망업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부산수제맥주 마스터챌린지’는 수제맥주 품평회를 통해 수제맥주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업종의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부산중구청, 경제진흥원,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며, 부산의 대표 수제맥주 9개 사가 참여하고, 자갈치상인회와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만든 씨(SEA)푸드, 아귀찜 밀키트, 소상공인의 푸드트럭도 운영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경북도-경북문화관광공사 여행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포항경주공항 연계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여행 인플루언서(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9월 20일~21일 양일간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는 포항경주공항 연계 경북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경주시·공사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김포공항에서 출발, 포항경주공항으로 도착하여 포항과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환호공원, 포항운하, 주상절리전망대, 송대말등대, 교촌마을, 월정교, 황룡사 역사문화관 등도 방문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해남군,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선정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모사업에 전남도내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2023년부터 2년간 국비 1억 2,000만원을 포함, 총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남 맛과 멋에 취하다’를 주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가든 관광농원 및 관내 농촌민박 등 다양한 지역농촌체험사업장이 참여하며, 기존의 대규모 단체여행에서 벗어나 가족단위·캠핑·미식을 연결한 프리미엄 농촌관광 콘텐츠로 구성한다. 특히 해남군 출연기관인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중간조직으로 운영주체가 되어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선정하고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안동시 낙동강 캠핑축제 29일 개막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주최하고 농업회사법인 연우(주)가 주관하는 2022 안동낙동강 캠핑축제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성희여고 앞 강변에서 개최된다.

2016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안동 낙동강 캠핑축제는 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과 연계해 전국 캠핑객을 대상으로 안동의 주요 관광지 및 지역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가족 단위 캠핑 100팀 400명 정도를 모집해 안동의 농산물을 활용한 캠핑 요리대회,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각종 체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자유 여행, 안동 사용영수증 추첨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